

## 기혼취업여성의 배우자 역할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박 은 옥\*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무보수의 가사노동보다는 보람있는 일에 대한 욕구, 생활수준향상을 누리기 위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출의 필요성 등과 같은 개인적 동기와 가족계획으로 인한 자녀 양육기간의 단축, 가정기기의 과학화로 인한 가사노동의 간편화, 그리고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노동력 필요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박충선, 1995; 유명주 등, 1996). 여성의 취업이 보편적인 사회현상이 되면서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맞벌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남편의 역할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지만, 가정 내에서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취업주부는 가정 내 역할을 부부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부인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정진희 & 이정우, 1991), 역할인식과 수행정도간에 괴리를 보이고 있다. 아내가 취업한 경우 아내가 취업하

지 않은 경우보다 남편의 가사 및 자녀양육수행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지만, 절대적 수행정도는 매우 낮았고, 아내가 취업했다하더라도 집안수리와 같은 전형적인 남자의 일만 남편이 주로 수행하며 나머지 가사와 자녀양육은 여전히 취업한 여성의 책임으로 남아있다(이미숙, 1995). 가정일의 분담과 남편의 가사일 참여정도는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나 심리적 건강과 연관성이 있으므로(고정자와 김갑숙, 1997; Glass & Fujimoto, 1994), 가사일의 분담정도는 배우자 역할의 질에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한편, 배우자 역할의 질은 삶의 질이나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혼역할의 질의 변화는 디스트레스의 변화와 연관성이 있는데 정규직 취업 부인의 경우 남편보다 결혼역할의 질의 변화에 더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보고한 바 있어(Barnett et al., 1995),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배우자역할의 질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역할의 질은 심리적 건강이나 신체적 건강 혹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도 하는데(고정자, 1998; 최규련, 1993; Vandewater et al., 1997; Wickrama et al., 1997; Windle & Dumenci, 1997), 어떤 연구들에서는 직업역할의 질 보다 배우자 역할의 질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Kandel et al., 1985; Miller et al., 1998;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Vandewater et al., 1997).

배우자 역할의 질과 건강수준 혹은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풍부한 데 비해, 배우자 역할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탐색은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배우자 역할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배우자 역할의 질 향상을 통한 여성건강증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배우자 역할의 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배우자 역할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둘째, 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특성에 따라 배우자역할의 질 수준을 비교분석하며 셋째, 배우자 역할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 3. 용어정의

배우자 역할의 질은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가사역할 수행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말한다.

# II. 문헌고찰

## 1. 기혼취업여성의 역할

기혼취업여성의 역할은 크게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정 내 역할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가정에서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게된다.

현대 한국 가족에 대한 연구를 행한 여러 학자들은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바깥 일', 여자는 '안 일'이라는 전통적인 역할분담 양식이 대체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최재석, 1982; 한남제, 1989). 한남제(1989)는 기혼여성의 역할을 경제적 역할, 가사역할, 자녀양육/사회화 역할, 우애적 역할로 나누었다.

경제적 역할은 주로 소비적 역할로 국한시킴으로써 기혼 여성이 임금 노동을 통하여 경제적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논하고 있지 않다. 기혼취업여성 스스로도 남자는 가족 부양, 여자는 자녀양육이 주요 책임이라는 인식이 깊어 자신의 임금은 가정경제에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다(유희균, 1994)

우애적 역할은 남편의 동반자라는 측면과 남편 내조자

라는 측면이 포함된다. 아내의 역할은 남편의 건강관리, 식사준비, 동반자로서 남편에게 정신적인 힘을 주는 것 등을 말하고 있다. 아내의 직장생활은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동반자로서의 자질이 증가한다는 측면이 있고, 절대적 시간의 부족과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때문에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고 아내가 전업주부처럼 남편을 내조하지 못한다는 측면도 있다.

가사역할은 음식준비, 세탁, 청소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어 온 분야에서는 아직도 여성의 역할이 크며, 일부 가사가 남성들에 의해 처리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에서 가사역할 수행을 남편에게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한남제, 1989).

한국사회에서 유아를 보살피는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아내에게 주어진다. 특히 유아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놀아주는 행위들은 전적인 아내의 책임으로 부과되어 왔다(한남제, 1989).

## 2. 배우자 역할의 질에 대한 개념 고찰

문헌에서 '역할의 질'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대부터이며, '역할의 질' 개념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할은 사회적 지위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지위에 따른 규범과 권리, 의무에 대한 기대, 인식,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질(Quality)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이 우수한 정도(a degree which something is excellent)'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역할의 질은 역할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Hibbard & Pope (1993)은 역할의 질이 역할의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고, Baruch & Barnett (1986)는 역할의 질이 '역할을 통해 얻게 되는 보상(rewards)과 부담(concerns)간의 차이(역할보상 - 역할부담)'이라고 하였다.

개인은 역할을 통해 역할갈등, 역할스트레스, 역할긴장과 같은 부정적 측면(부담)을 경험하기도 하고, 역할만족, 사회적 지지의 증가나 자부심, 경제적 수입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보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동안 역할과 관련된 연구는 역할의 부정적 측면이든 긍정적 측면이든 한 쪽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에 반해 역할의 질은 이러한 역할보상과 역할부담의 총체적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 역할의 질과 연관되는 개념들의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결혼만족도는 '개인의 결혼관계에 대한 호의적 태도'로 정의되는데(Roach et al., 1981),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어 배우자에 의해 경험되는 만족으로 정의되어지기도 하고,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으로 정의되어지기도 한다(서동인, 1985). 부부관계로 제한하는 경우 부부간의 조화, 적응, 의사소통 등과 같은 결합 측면을 강조한 연구가 있고(김득성, 1986; 이인수 & 유영주, 1986; Orden & Bradburn, 1968; Spanier, 1976), 결혼생활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결혼을 통해 형성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인척관계뿐 아니라 경제나 주택 등 생활의 여러 측면을 포함시킨 연구도 있다(김득성, 1992; 서동인, 1985; Burr, 1970).

김득성(1986)은 Spanier(1976)의 DAS(Dyadic Adjustment Scale)의 타당화 작업을 통해 부부의 만족도, 부부의 결합도, 부부의 애정표현도, 부부의 일치도 등 4개의 하위 요인을 발견하였는데, 이 네 개 요인에 의한 전체 설명변량은 34%에 불과하여 타당하게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DAS는 부부관계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이인수와 유영주(1986)는 Roach et al.(1981)의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작업을 통해 6개의 하위 요인을 발견하였다.: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 부부의 사회적, 심리적 동료감, 결혼생활의 애로요인, 부부관계의 불만요인, 부부의 합당한 태도, 결혼생활에 대한 인지 등을 추출한 바 있다.

Burr(1970)는 재정관리, 사회활동, 동료애, 자녀양육, 성관계, 가사일 수행 등 6개 요인을 하부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김득성(1992)은 결혼만족도 척도의 영역을 부부간 애정 및 동료감, 의사소통, 의사결정, 성관계, 경제상태, 자녀교육, 여가, 가사처리 등으로 하였으며, 서동인(1985)은 성과 애정, 부부간의 의사소통, 응집성, 경제관리, 자녀양육과 자녀관계, 시대와 친정과의 관계와 경제상태 등 9개 요인을 선택하였다.

Hibbard et al.(1993)은 배우자 역할의 질을 결혼만족도와 의사결정에서의 평등성, 동료관계로 삼았고, 박은옥 등(1999)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지지, 경제적 안정감, 존중감, 친밀감, 동료애 등이라고 하였다.

문헌에서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은 척도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고, 요인의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각 하부요인이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관성이 높은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부부관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는가하면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 있기도 하다. 생활전반을 포괄하는 결혼만족도의 경우 생활만족도와 차별을 갖기 어려운 점이 있다.

역할의 질을 역할을 수행하면서 겪게되는 주관적 경험과 역할이 갖고 있는 객관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때, 배우자 역할의 질은 배우자의 객관적 특성과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로서의 역할수행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역할의 질의 하부요인으로 성생활, 동료감, 친밀감, 배우자 지지를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 배우자와의 관계로, 남편의 성격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만족 등을 포함한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가사역할수행 등 3개 요인을 하부요인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즉 배우자 역할의 질은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가사역할 수행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말한다.

### 3. 배우자 역할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 동안 배우자 역할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결혼만족도 등 관련 개념을 다룬 연구도 포함시켜 문헌고찰을 하였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개인적 특성과, 결혼 관련 특성, 직업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등을 들 수 있다. 본인의 연령이 낮은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높고(김경숙, 1988),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김명자, 1977; 이동원, 1976),

다음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결혼 관련 특성으로 남편의 지지도, 가사조력자 유무, 남편의 가사참여정도, 가사분담정도, 가사분담의 공평성 인지, 성 역할 태도, 부부 간의 권력형태, 배우자와의 대화만족도 등이 있다.

남편의 지지가 높은 집단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김경숙, 1988; 김경신, & 김오남, 1996; 정혜정, 1986; 최규련, 1993), 가사조력자가 있는 경우 가사조력자가 없는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정혜정, 1986; 최규련, 1993), 남편의 가사참여정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최규련, 1993). 남편의 가사참여 정도는 부인이 비취업일 때보다 취업하였을 때 약간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고(이미숙, 1995), 부인의 취업이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와 관계없다는 연구결과(이정수, 1984)가 있어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직장일과 집일일에 대해 배우자와 비교하여 불공평하

다고 인지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았고(최규련, 1993), 가사노동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다고 인지될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문숙재, 허경옥, & 홍윤정, 1997), 가사노동분담이 증가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김경신, & 김오남, 1996; 문숙재 등, 1997).

취업집단이 비취업집단에 비해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이고(김경신, 1996),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박미령, 1987; 최규련, 1993). 부부간의 권력형태가 평등할 때 남편이나 부인이 지배적인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최규련, 1993), 배우자와의 대화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신, & 김오남, 1996).

부모 역할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자녀의 연령과 미취학 자녀의 존재 여부가 있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homas, Albrecht, & White, 1984; 정혜정, 1986에서 재인용). 딸이 부부의 경우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스트레스와 긴장을 경험한다고 한다(Skinner, 1980; 정혜정, 1986에서 재인용).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직업 관련 변인은 직종과 직위, 취업동기, 근무기간, 직업만족도 등이다.

첫째, 직종과 직위가 결혼만족도에 관련되는데, 이동원(1976)은 전문직 종사자가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사무 및 행정직, 판매 및 서비스직의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김경숙(1988)의 연구에서는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집단이 생산직에 종사하는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직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최규련, 1993).

둘째, 이동원(1979)은 결혼만족도는 취업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취업관 혹은 직업에 대한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취업을 한 경우보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았다(서동인, 1985; 이동원, 1979). 최규련(1993)의 연구에서도 취업동기가 경제적인 집단보다 비경제적인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취업의 동기가 결혼만족도에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근무기간이 긴 집단이 근무기간이 짧은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숙, 1988).

넷째, 직업만족도가 결혼만족도와 관계가 있다.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정적인 상관이 있어서 직업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만족도도 높다고 하였다(김경숙, 1988; 김경신, & 김오남, 1996; 서동인, 1985; 이동원, 1976; 이효재, 1983; 정혜정, 1986; 최규련, 1993; Zimmerman, Skinner, & Birner, 1980).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수도권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가운데 취업 후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취업을 시작하여 새로운 역할전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일년이라는 Booth(1979)의 연구에 근거하여 조사시점에서 취업 후 1년이상 경과된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 2. 자료수집

1998년 8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를 표집하기 위하여 수도권 신도시에서 협조가 가능한 어린이집 2곳, 유치원 1곳, 서울시 도봉구와 용산구에서 초등학교 1개교씩, 구로구, 강서구, 관악구에 소재해 있는 중학교 1개교씩, 용산구와 관악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1개교씩, 강남구에서 고등학교 2개교를 임의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3개교, 중간층인 지역에 있는 학교는 4개교,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에 있는 학교는 2개교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든 원아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여 취업자만을 가려내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어머니가 취업한 학생에게만 설문지를 주고, 다시 회수하도록 하였다. 회수율은 62.3%였으며, 323명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 3. 측정도구

배우자 역할의 질은 박은옥 등(1999)의 도구를 기초로 하고, 문헌고찰을 통해 선택한 3개의 하부요인에 맞게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연구에 이용하였으며, 자료수집 후 요인분석과 문항의 일관성을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시 Harris 성분분석과 Harris-Kaiser II Orthoblique 회전을 선택하였다.

배우자 역할의 질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 전혀 아니다 1점, 대체로 아니다 2점, 그저그렇다 3점, 대체로

〈표 1〉 배우자 역할의 질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문항	요인1 가사역할수행	요인2 배우자에 대한 만족	요인3 배우자와의 관계	h <sup>2</sup> communality
13. 남편은 가사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0.69			0.4621
15. 남편과 나는 가사일을 비교적 공평하게 나누어 한다.	0.64			0.4354
14. 집안에 자질구레한 일들이 나를 지치게 한다.*	0.53			0.3317
16. 요리, 청소, 빨래 같은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한다	0.30			0.1966
19. 나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만족한다.		0.92		0.5350
18. 내가 다시 결혼한다 해도 지금의 남편 같은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0.68		0.6746
20. 나는 나의 남편이 남편으로서 최고라고 생각한다.		0.58		0.5810
12. 남편이 버는 돈은 충분하지가 않다.*		0.54		0.2757
10. 돈 때문에 남편과 갈등을 겪곤 한다.*		0.51		0.2563
17. 남편의 성격이 참 마음에 든다.		0.49		0.6372
11. 남편이 돈을 벌어서 준다는 점이 고맙게 여겨진다.		0.39		0.2316
8. 남편의 돈 씀씀이나 관리방법에 만족한다.		0.30		0.2984
6. 남편은 한 인간으로서 나를 좋아한다.			0.89	0.6133
2. 남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지지해 준다.			0.81	0.5743
5. 남편은 나와 진심으로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 준다.			0.70	0.5184
1. 남편은 좋은 친구 같다.			0.68	0.6530
4. 남편과 내가 동반자라는 느낌이 부족한 것 같다.*			0.66	0.5384
7. 성생활은 만족스럽다.			0.60	0.3431
3. 남편과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			0.48	0.3549
고유치	15.10	1.51	1.38	
설명 변량	83.3	8.3	7.6	
누적설명변량	83.3	91.6	99.2	

\* 표시 문항은 분석시 역산함.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였으며,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자료수집 후 신뢰도 평가에서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문항 1개(내 자신이 알뜰하게 살림을 잘 한다고 생각한다.)를 제외하고 분석에 이용하였다. 19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0$ 이었다. 요인적재량은 변수와 요인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0.3보다 작으면 유의성이 낮다고 보며, 0.4이하이면 중간정도의 유의성이 있고, 0.5이상이면 유의성이 높다고 보는데(김충련, 1997), 요인분석결과 요인적재량은 모든 문항에 대해 0.30이상이어서 모든 문항을 채택하였다. 요인분석결과 문헌고찰을 통해 채택한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각 가사역할수행(4문항), 배우자에 대한 만족(8문항), 배우자와의 관계(7문항) 등으로, 3개 요인에 의한 설명변량은 99.31%였다(표 1).

그 외 배우자 역할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되는 변수를 포함시켰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종교, 교육수준, 월평균가계소득을 포함시켰고, 직업 특성으로 본인의 직업, 근무경력, 주당근로시간, 월평균임금, 취업상태 등을 결혼 및 배우자 관련특성으로 결혼기간, 배우자의 직업, 부부간 노동분담에서의 형평성 인지도,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등을 포함시켰다.

#### 4. 분석방법

SAS 6.02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변수의 특성별 배우자 역할의 질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혹은 ANOVA를 하였다. 배우자 역할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별 회귀분석을 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는 〈표 2〉과 같다. 연령은 41-45세가 38.2%로 가장 많았고, 평균 41.47세였다. 기독교가 46.8%, 고등학교 졸업자가 158명으로 50.3%였고, 전문대졸업 이상인 대상자는 35.4%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수입은 150만원 미만 21.6%, 150-250만원 39.5%, 350만원 이상인 경우가

<표 2>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포

특 성	구 분	빈도	%	Mean(S.D) 범위
연령 (N=319)	35세 이하	35	11.0	41.47(4.94) 29-58
	36 - 40 세	99	31.0	
	41 - 45 세	122	38.2	
	46 세 이상	63	19.7	
종교 (N=316)	기독교	148	46.8	
	불교	62	19.6	
	카톨릭교	37	11.7	
	종교없음	69	21.8	
교육수준 (N=314)	중졸 이하	45	14.3	
	고졸	158	50.3	
	전문대졸 이상	111	35.4	
월평균 가계수입 (N=291)	150만원 이하	63	21.6	
	150 - 250만원	115	39.5	
	250 - 350만원	76	26.1	
	350 만원 이상	37	12.7	
직업 (N=310)	전문행정직	81	26.1	
	사무직	22	7.1	
	판매직	89	28.7	
	서비스직	76	24.5	
	생산직 및 단순노무직	42	13.5	
근무경력 (N=320)	1 - 2 년	76	23.8	8.72(7.43) 1-32
	3 - 5 년	69	21.6	
	6 - 10 년	79	24.7	
	11 -15 년	35	10.9	
	16년 이상	61	19.1	
주당근로시간 (N=314)	20 - 40시간	69	22.0	49.81(15.35) 20 - 105
	41 - 60시간	186	59.2	
	61시간	59	18.8	
월평균수입 (N=318)	50만원 미만	32	10.1	
	50 - 100만원	116	36.5	
	100 - 150만원	68	21.4	
	150 - 200만원	56	17.6	
	200만원 이상	46	14.5	
취업상태 (N=315)	정규직	255	80.4	
	시간제	60	18.9	
결혼기간 (N=315)	10년 이하	38	12.1	17.15(5.25) 2-30
	11 - 15년	62	19.7	
	16 - 20년	151	47.9	
	21년 이상	64	20.3	
남편의 직업 (322)	비전문직	231	71.7	
	전문직	91	28.3	
부부간 노동분담의 공평성 인지도 (N=319)	아주 불공평하다	36	11.3	2.70(1.14) 1-5
	불공평하다	144	45.1	
	잘 모르겠다	37	11.6	
	공평하다	84	26.3	
	아주 공평하다	18	5.6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N=321)	매우 반대한다	1	0.3	4.12(1.00) 1-5
	반대한다	28	8.7	
	관심없다	53	16.5	
	찬성하나 돕지않음	88	27.4	
	찬성하고 잘 도움	151	47.0	

12.7%였다.

직업은 판매직이 89명, 28.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다음은 전문행정직으로 26.1%였으며, 서비스직이 24.5%로 나타났다. 사무직은 7.1%로 적은 편이었다. 생산직 및 단순노무직은 13.5%였다. 전문행정직을 전문직으로, 나머지 직업군을 비전문직으로 구분하면, 비전문직인 경우가 73.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근무경력에 따른 분포에서는 취업한지 6-10년이 지난 경우가 24.7%, 1-2년인 경우가 23.8%, 3-5년인 경우는 21.6%, 16년 이상이 19.1%, 11-15년 된 경우는 10.9% 순으로 나타났다. 주당 41-60시간 근무자가 186명으로 59.2%였고, 본인의 월평균 수입은 50-100만원인 경우가 36.5%로 많았다. 정규직이 80.4%를 차지하였다.

결혼기간은 16-20년인 경우가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21년 이상인 경우는 20.3%, 10년 이하인 경우는 12.1%였다. 남편의 직업은 비전문직이 71.7%였다.

부부간 노동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지도는 공평하지 않거나 아주 공평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사람이 56.4%로 절반 이상이 불공평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26.3%, 아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6%에 불과하였다. '아주 불공평하다'를 1점 - '아주 공평하다'를 5점으로 하였을 때, 평균값은 2.70이었다.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매우 반대는 단 1건으로 0.3%, 반대한다는 8.7%에 불과하였으며, 관심 없다는 16.5%였고, 찬성하는 경우는 74.4%나 되었다.

## 2. 배우자 역할의 질 수준

배우자 역할의 질에 대한 평균은 3.27이었다. 하부요인별로는 가사일수행의 평균이 2.83,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3.18, 배우자와의 관계는 3.62였다. 대상자들은

가사일에 대해 힘들어하고, 남편의 가사일 참여는 적은 편이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표 3). 배우자 역할의 질 하위요인들은 정규분포를 하지 않지만, 왜도와 첨도가 -1과 1 사이에 있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배우자역할의 질 총점은 정규분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 역할의 질 수준 비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배우자 역할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하였다(표 5).

연령이 35세 이하인 집단이 3.43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46세 이상인 집단이 3.13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배우자 역할의 질은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35세 미만인 집단과 46세 이상인 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간 남녀평등의식이 강하고 성역할태도도 근대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의 여성중심형 가사노동수행도가 크고(허경옥, 1994), 아내의 취업에 대해 허용적이어서 역할갈등을 적게 경험하며(임정민 & 정해정, 1986),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이었다(정지숙, 1994). 이와 같은 사실은 배우자 역할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비교에서는 중졸이하인 집단이 3.01로 고졸인 경우(3.30)와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3.36)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매결혼보다는 연애결혼이 많고(정지숙, 1994),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이며(정지숙, 1994),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과 연관된다고 본다.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서는 150만원 미만과 150-250만원 사이인 경우 각각 2.99, 3.16이었고, 250-350만원인 경우가 3.44로 가장 높았다. 350만원

〈표 3〉 배우자 역할의 질 수준

배우자 역할의 질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범위	왜도	첨도	Wilk's Lamda
가사역할수행	2.83	0.89	1-5	0.127	-0.592	0.963***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3.18	0.82	1-5	0.094	-0.486	0.970**
배우자와의 관계	3.62	0.84	1-5	-0.472	-0.385	0.952***
총문항평균	3.27	0.72	1-5	-0.070	-0.437	0.978

\*\*\*p<.0001

이상인 경우가 3.24으로 더 낮아지기는 했지만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 역할의 질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집단간 평균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막내 자녀의 연령이나 자녀 수에 따른 배우자 역할의 질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에 비전문직인 경우보다 배우자 역할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다.

근무경력에 따른 배우자 역할의 질 차이는 유의하였으며, 근무경력이 3-5년인 집단과 16년 이상인 집단의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으며, 이는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유의한 것이었다. 근무경력이 6-10년, 10-15년인 집단은 3-5년인 집단보다 배우자 역할의 질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근무경력이 길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김경숙, 1987)와는 다른 결과이므로 후속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배우자 역할의 질에 차이가 없었다. 월평균 수입이 많은 집단일수록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았으며, 이 차이는 유의하였다. 취업상태를 시간제와 정규직으로 구분하였을 때, 이 두 집단 간 배우자 역할의 질은 차이가 없었다.

결혼기간에 따른 비교에서 결혼기간이 11-15년인 경우, 배우자 역할의 질은 3.45로 가장 높았고, 21년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 집단 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에 비전문직인 경우보다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그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는 정도가 크고, 따라서 남편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아진다고 본다.

부부간 노동분담에 대한 공평성 인지도 집단별로 배우자 역할의 질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주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는 집단은 2.82였고,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는 집단은 3.06이었으며 이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집단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집단은 3.64, 아주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집단은 3.95로 아주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집단은 다른 집단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혼여성은 남편의 가사일 참여가 클수록 결혼생활에 만족을 느끼고(문숙재 등, 1997), 배우자 역할의 질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관심없다에 응답한 집단은 배우자 역할의 질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2.83), 취업에 찬성하고 잘 도와준다에 응답한 집단은 3.59로 다른 범주에 응답한 집단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즉 아내의 취업에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전혀 관심없는 것보다는 낫고, 반대하는 것보다는 찬성하고 잘 도와주는 경우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 역할의 질 비교 (N=323)

특성	구분	Mean	t or F	Duncan grouping
연령	35세 이하	3.43	1.85	A
	36 - 40 세	3.35		A B
	41 - 45 세	3.23		A B
	46 세 이상	3.13		B
교육수준	중졸 이하	3.01	4.02*	B
	고졸	3.30		A
	전문대졸 이상	3.36		A
월평균 가계수입	150만원 이하	2.99	5.03**	B
	150 - 250만원	3.16		A B
	250 - 350만원	3.44		A
	350 만원 이상	3.24		A B
직업	비전문직	3.19	2.78**	
	전문직	3.44		
근무경력	1 - 2 년	3.05	3.39**	A
	3 - 5 년	3.39		B
	6 - 10 년	3.26		A B
	11 - 15 년	3.20		A
	16년 이상	3.45		B
주당 근로시간	20 - 40시간	3.31	0.33	
	41 - 60시간	3.26		
	61시간	3.20		
월평균수입	50만원 미만	3.08	4.44	B
	50 - 100만원	3.14		B
	100 - 150만원	3.28		B
	150 - 200만원	3.36		A B
	200만원 이상	3.61		A
취업상태	정규직	3.28	1.18	
	시간제	3.16		
결혼기간	10년 이하	3.33	1.09	
	11 - 15년	3.45		
	16 - 20년	3.22		
	21년 이상	3.19		
남편의 직업	비전문직	3.17	4.62***	
	전문직	3.55		
부부간 노동분담의 공평성	아주 불공평하다	2.82	20.08***	D
	불공평하다	3.06		C D
인지도	잘 모르겠다	3.33		C
	공평하다	3.64		B
	아주 공평하다	3.95		A



## V. 논 의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 역할의 질 비교-계속

특성	구분	Mean F or t	Duncan grouping
취업에 대한 반대한다		3.13	24.48*** B
남편의 태도	관심없다	2.83	C
	찬성하나 돕지않음	3.05	B C
	찬성하고 잘 도움	3.59	A

\* p<.05 \*\*p<.01 \*\*\* p<.001

### 4. 배우자 역할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배우자 역할의 질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 월평균 가계소득, 남편의 직업, 부부간 노동분담의 공평성 인지도,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등이었다. 이 가운데 부부간 노동분담의 공평성 인지도가 배우자 역할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beta=0.38$ ).

배우자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부부간 노동분담이 공평하다고 인지할수록 배우자 역할의 질은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 역할의 질이 좋게 나타났다. 이 변수들에 의한 설명변량은 34.36%였다(표 5). 배우자 역할의 질은 직업 특성보다는 배우자와 관련된 특성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표 5〉 배우자 역할의 질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N=323)

독립변수	종속변수	$\beta$	partial R <sup>2</sup>
연령		-0.09*	0.0087
교육수준		-	
월평균가계소득		0.18***	0.0821
직업		-	
근무경력		-	
주당 근로시간		-	
월평균임금		-	
취업상태		-	
결혼기간		-	
남편의 직업		0.19***	0.0281
부부간노동분담의 공평성인지도		0.38***	0.1711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0.22***	0.0536
total R <sup>2</sup>			0.3436

교육수준: 0=고졸이하, 1=전문대졸 이상

직업: 0=비전문직, 1=전문직

월평균임금: 0=150만원 미만, 1=150만원 이상

월평균가계소득: 0=200만원 미만, 1=200만원 이상

\*p<0.05, \*\*\*p<0.001

본 연구대상자의 직업별 분포는 판매직이 가장 28.7%로 가장 많고, 전문행정직이 26.1%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기혼여성의 취업분포가 농수산직을 제외하고, 생산직, 판매직, 서비스직, 전문행정직이 각각 31.4%, 30.2%, 26.0%, 9.2%로 나타난 연구결과(김태홍, 1993)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본 연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이 표집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자녀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설문응답에 응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본인의 월평균 임금이 50-100만원인 경우가 36.5%로 가장 많았는데, 시간제 근무자가 19.6% 포함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혼취업 여성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보여진다.

대개의 남편은 아내의 취업에 찬성하지만(74.4%), 부부간 노동분담의 형평성 인지도에서는 공평하지 않거나 아주 공평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사람이 56.4%로 실질적인 노동분담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으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가정 내에서의 성에 따른 역할분담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배우자 역할의 질 하부요인인 가사역할수행,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가운데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은 가사역할수행이었다. 이는 가사일에 남편의 참여가 적고 가사일을 부담스러워함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가사역할수행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배우자 역할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가사조력자가 있는 경우 가사조력자가 없는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정혜정, 1986; 최규련, 1993)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배우자 역할의 질을 비교한 결과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 근무경력, 월평균수입, 남편의 직업, 부부간 노동분담의 공평성 인지도,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연령, 월평균가계소득, 남편의 직업, 부부간 노동분담에 대한 공평성 인지도, 취업에 대

한 남편의 태도 등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이가 적을수록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았고, 월평균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전문적인 경우, 부부간 노동분담이 공평하다고 인지할수록,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게 나타난 것은 김경숙(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령의 경우 나이가 적을수록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은 것은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 결혼상대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점점 변화되는 성역할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결혼만족도는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박미령, 1987; 최규련, 1993). 월평균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았는데, 이는 경제수준이 배우자 역할의 질에 관련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직업, 부부간 노동분담의 공평성 인지도,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등은 모두 배우자와 관련되는 변수들이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역할의 질이 남편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가운데 부부간 노동분담에 대한 공평성 인지도는 배우자 역할의 질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 문숙재 등(1997)은 부부간 노동분담이 공평하다고 인지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또 일부 연구에서 남편의 가사참여가 많을수록, 가사노동분담이 증가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보고도 있었다(김경신 & 김오남, 1996; 문숙재 등, 1997; 최규련, 1993). 이러한 연구들은 부부간 노동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여길수록 배우자 역할의 질도 높다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았는데, 선행연구에서도 남편의 지지가 높은 집단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었다(김경숙, 1988; 김경신 & 김오남, 1996; 정혜정, 1986; 최규련, 1993).

남편의 직업이 전문적인 경우에 비전문적인 경우보다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았다. 남편의 직업은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로 여길 수 있다. 배우자 역할의 질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배우자 역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정도를 증가시키고, 아내의 취업을 지지해 주는 등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버리고 성역할의 구분을 제거하는 데서 출발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 VI.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기혼 취업 여성의 배우자 역할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배우자 역할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취업후 1년이 지난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도권 신도시에서 협조가 가능한 어린이집 2곳 유치원 1곳, 서울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3개교씩, 고등학교 4개교를 임의 선정하여, 아동에게 설문지를 배포한후 어머니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어머니의 설문응답후 다시 가져오도록 하였다. 1998년 8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회수율은 62.3%였으며, 323명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박은옥 등(1999)의 배우자 역할의 질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측정에 이용하였으며, 자료수집 후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정한 결과 3개의 하부요인을 갖고 이 하부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이 99.31%,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0$ 이었다.

배우자 역할의 질에 대한 평균은 3.27이었다. 하부요인별로는 가사일수행의 평균이 2.83,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3.18, 배우자와의 관계는 3.62였고 대상자들은 가사일에 대해 힘들어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배우자 역할의 질을 비교한 결과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 근무경력, 월평균수입, 남편의 직업, 부부간 노동분담의 공평성 인지도,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연령, 월평균가계소득, 남편의 직업, 부부간 노동분담에 대한 공평성 인지도,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등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이가 적을수록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았고, 월평균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전문적인 경우, 부부간 노동분담이 공평하다고 인지할수록,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았다. 이러한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은 33.81%였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역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부간 가사노동분담을 공평하게 하고, 취업에 대해 남편이 찬성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을 높임으로써, 가사역할에 남편의 참여를 증가시킴으로써 배우자 역할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 2. 제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일부지역에 한정하였고, 기혼 취업여성만을 대상으로 임의 추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앞으로의 연구는 취업여성 뿐 아니라 비취업여성을 포함시켜 배우자 역할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수집시 자녀를 통해 설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였으므로 대상자의 응답이 자녀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측정의 오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자녀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수집을 하는 경우에 보다 더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 역할의 질 개념과 결혼만족도 개념과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개념의 속성을 보다 구체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역할의 질은 건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진 바, 배우자 역할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여성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배우자 역할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고정자 (1998). 맞벌이 부부의 직업관련변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163-178.

고정자, 김갑숙 (1997). 취업주부와 비취업 주부의 삶의 질에 대한 인과모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429-441.

김경숙 (1988). 기혼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신 (1996). 기혼여성의 취업여부 및 관련변인이 가

족원의 만족도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157-171.

김경신, 김오남 (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김득성 (1986). Spanier의 결혼적응척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12, 55-73.

김득성 (1992).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의 관계: 사회교환이론적 접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명자 (1977).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충련 (1997). SAS라는 통계상자. 서울:데이터플러스.

김태홍 (1993).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여성연구, 38(봄), 75-109.

문숙재, 허경옥, & 홍윤정 (1997). 부부간 가사노동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345-358.

박미령 (1987). 한국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 연구 - 성역할태도와 주관적 자원인지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은옥, 진경자, & 김화중 (1999). 여성의 역할의 질 척도 개발 - 직장인 역할, 배우자 역할, 부모역할을 중심으로 - 한국모자보건학회지, 3(1), 117-132.

박충선 (1995). 맞벌이 가족의 형성과정과 접근방법. in [맞벌이 가정의 가족문제] ed. by 한국가족학 연구회 편. 서울: 도서출판 하우. 11-45.

서동인 (1985). 취업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 변수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영주, 김경신, 김순옥 (1996). 가족관계학. 교문사.

유희균 (1994). 기혼취업여성의 가정내 역할에 관한 연구 - 간호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원 (1976). 직업여성의 이중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7, 229-265.

이미숙 (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 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인수, 유영주 (1986).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1-14.

이정수 (1984).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03-132.

이효재 (1983).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 임정빈, 정혜정 (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71-84.
- 정지숙 (1994). 주부의 성역할태도,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희, 이정우 (1991). 도시저소득층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19-135.
- 정혜정 (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 (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 최재석 (1982).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 한남제 (1989). 현대한국가족연구. 일지사.
- 허경옥 (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90-105.
- Barnett, RC., & Marshall, NL. Raudenbush, SW., & Brennan, RT. (1993). Gend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udy of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5), 794-806.
- Barnett, RC., Raudenbush, SW., Brennan, RT., Pleck, JH., & Marshall, NL. (1995). Change in job and marital experiences and change in psychological distress: A longitudinal study of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839-850.
- Baruch, GK., & Barnett, R. (1986).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578 - 585.
- Booth, A. (1979). Does wives' employment cause stress for husbands? The Family Coordinator, 28(Oct), 445-457.
- Burr, WR. (1970).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A random middle class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Feb), 29-37.
- Glass, J., & Fujimoto, T. (1994). Housework, paidwork, and depression among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June), 179-191.
- Hibbard, JH., & Pope, CR. (1993). Health effects of discontinuities in female employment and marital status. Social Science Medicine, 36(8), 1099-1104.
- Kandel, DB., Davies, M., & Raveis, VH. (1985). The stressfulness of daily social roles for women: marital, occupational and household rol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March), 64-78..
- Miller, AM., Wilbur, J., Montgomery, AC., & Chandler, P. (1998). Social role quality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in employed black and white midlife women. AAOHN Journal, 46(8), 371-378.
- Orden, SR., & Bradburn, NM. (1968). Dimensions of marriage happines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3(May), 715-731.
- Roach, AJ., Frazier, LP., & Bowen, S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Aug), 537-546.
- Spanier, G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Feb), 15-28.
- Vandewater, EA., Ostrove, JM., & Stewart, AJ. (1997). Predicting women's well-being in midlife: the importance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social role invol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5), 1147-1160.
- Wickrama, KAS., O'Lorenz, F., Conger, RD., & Elder, Jr. GH. (1997). Marital quality and physical illness: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Feb), 143-155.

Windle, M., & Dumenci, L. (1997). Parental and occupational stress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dual-income couples: A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Aug), 625-634.

Zimmerman, KW., Skinner, DA., & Birner, R. (1980). Career involvement and job satisfaction as related to job strain and marital satisfaction of teachers and their spous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6).

-Abstract-

Key concept : Quality of marital Role, Employed Women

##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Quality of Marital Role of Married, Working Women in Korea

*Park, Eunok\**

The labor participation rate of women are increasing, especially for married and 30 and over aged women in Korea. Marital role quality might be regarded as an influencing factor on quality of life or health stat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fluencing factors on quality of marital role for Korean employed women with husband.

Data were collected from 323 mothers of students at 3 kindergartens, 2 elementary schools, 3 middle schools, 4 high schools in metropolitan area, during 1998.8~1998.12. they were dual-earner couples, and were employed over one year. Response rate is 62.3%.

Quality of marital role was measured using Role Quality Scale developed by Park, June & Kim(1999). This instrument is based on Role Rewards and Concerns Scale of Barnett et al.(1993) for quality of marital role. Quality of marital role is made of 19 items and the subfactors are doing households, satisfaction with husband, and relationship with husband. The scale has good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  $\alpha = 0.90$ ).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age,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husband's occupation, husband's attitude for wife's employment, and the perceived equity for labor division between couples are significant variables for quality of marital role. But education, career years, working hours per week, occupation, monthly average wage, and marital years are not significant. 33.81% of the variance in quality of marital role were accounted for by these variables.

\* Department of Nursing, Medical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